

# 지역 中企·소상공인 “새 국회, 중기활성화 입법을”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

50% “중기정책 입법 기대 높아”  
금융 지원·중대재해법 보완 필요  
‘21대 지역의원 평가’ 55% 부정적

제22대 국회 개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계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을 꼽으며 새 국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CEO 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입법 행보 기대 정도에 대해 ‘높다’는 의견이 50.3%, ‘낮다’는 19.6%로 나타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또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4.1%는 가장 바람직한 지역 국회의원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상여로를 파악하고, 최우선으로

반영되길 희망하는 입법과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21대 국회(지역 국회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에서는 55%가 ‘못했다’로 응답했으며, ‘잘했다’는 9.1%에 그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21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하 복수 응답)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해소, 입법노력 등 관심 부족’이 59.8%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부족’과 ‘지역현안의 해결보다는 중앙정치에 집중’이 각각 41.6%를 차지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규제강화’가 21.1%, ‘대우위니아사태 등 지역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부족’이 18.2%로 뒤를 이었다.

제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는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 61.2%, ‘대출한도 확대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43.1%,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 38.8%,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2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지역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47.4%, ‘지역

중소기업 협업축진을 위한 지역중소기업법 개정’ 46.4%,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30% 이상) 법제화’ 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겨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민생국회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성년의날 선물 준비하세요” 광주신세계는 오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향수, 주얼리 매장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친다. 본관 2층의 ‘조 말론 런던’은 16일부터 19일까지 코롱 100ml, 코롱 인텐스 50ml 혹은 100ml, 로즈 컬렉션 제품 구매 시 장미 한송이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관 3층에 있는 ‘스톤헨지’는 신규회원 대상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대표상품으로는 로즈골드 목걸이와 귀고리가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전남-경남신보,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맞손’

### 농협·경남은행과 업무협약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경남 신용보증재단(경남신보) 및 금융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을 넘어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남해안 관광벨트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경남신보·농협은행·경남은행과 함께 지난 14일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하동군 소재 ‘화개장터’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15억원을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인 225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남해안 관광벨트의 권역인 여수시 등 전남 16개 지자체와 창원시 등

경남 7개 지자체에서 관광관련 업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보증한도를 우대하고, 1%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원활한 자금공급에 힘쓰는 한편, 경영지도 사업을 통해 메뉴개발, 마케팅, 온라인 판로확대 등 관광벨트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공동협약을 계기로 남해안이 전남도와 경남도의 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영호남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 서해안고속도로 영광졸음쉼터 임시 폐쇄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영광졸음쉼터(서울방향)를 임시 폐쇄한다고 15일 밝혔다.

영광군 일대 지역주민의 편리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해 ‘영광졸음쉼터 하이패스IC 설치’를 지난해 1월부터 공사 진행 중이다.

졸음쉼터 내 주차면수 증대 등 시설물

보완 및 하이패스 IC 연결로 설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졸음쉼터를 임시 폐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영광졸음쉼터 임시 폐쇄 기간동안 14km 전방의 합평천 지류계소와 12km 이후 대산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공사를 최대한 안전하고 빠르게 마무리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상의,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인재육성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예비 신입사원 경력만들기 진행

광주상공회의소와 (사)인재육성아카데미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인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지난 3월 광주상의가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로 선정됐고, 인재육성아카데미는 광주지역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인재육성아카데미가 올 상반기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29기는 홍보마케팅마스터과정 28명, 스마트팩토리생산관리마스터과정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업에서

필요한 공통기초과정과 기업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전직무교육이 총 4주 80시간에 걸쳐 선행되며, 이후 4주간 기업 담당자의 멘토링을 받으며 참여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해 참여자의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케이㈜에서 제안한 ‘스마트 자동화 공정 구축 방안 제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Balance 개선 방안 제안’ 프로젝트와 ㈜노을커뮤니케이션즈에서 제안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마케팅 전략 수립’,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연수생이 원하는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은 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한 참여자에 한해 진행되며, 4인 내외로 구성된 팀에게 프로젝트 실행비 120만원

을 지급하고 수료 조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는 프로젝트 수행 종료 후 고용노동부와 기업체가 발급하는 수료증 수여 및 참여수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복인재육성아카데미 센터장은 “이번 기업제안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지역대학인 동신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4개 대학이 함께 협약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광주·전남지역의 청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을 쌓고,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0일까지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인재육성아카데미 누리집(www.mdsarang.com)을 참고(문의 062-224-7733)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 기아, 상품성 강화 ‘더 뉴 EV6’ 계약 개시

### 디자인·배터리·편의사양 개선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가 더욱 완벽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전용 전기차 ‘더 뉴 EV6(The new EV6, 이하 EV6)’(사진)의 계약을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EV6의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전 트림의 가격을 동결해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공개된 EV6는 약 3년 여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로 기아의 신규 패밀리룩을 반영한 역동적인 디자인과 84kWh의 4세대 배터리 탑재로 494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갖췄다.

차량과 사용자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SDV 기반의 첨단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탑재하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등 고객이 선호하는 다채로운 편의 사양이 적용돼 전반적인 상품성이 대폭 강화됐다.

하이라이트는 전면부에 기아 새 패밀리룩인 스마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된 주간 주행등(DRL)이다.



실내는 기존 수평적 조형을 바탕으로 새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낸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깔끔하면서도 와이드한 느낌을 강조했다.

기아는 신형 EV6를 통해 더 향상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우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4세대 배터리를 적용해 배터리 용량을 기존 77.4kWh에서 84kWh로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롱 레인지 이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475km에서 494km로 늘었다.

급속 충전 속도도 개선됐다. 배터리 용

량이 증가했음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350kW 급 초고속 충전 시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18분’ 이내에 충전 가능하다.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 △라이트 5540만원 △에어 5824만원 △어스 6252만원 △GT-라인 6315만원이다. (2WD 기준) EV6는 주요 정부 부처 인증이 완료된 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라이트 5260만원 △에어 5530만원 △어스 5935만원 △GT-라인 5995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범 기자**